



제목	터키사 100: 가장 쉽게 읽는 터키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청아출판사
발행일	2017. 11. 30.
저자	이희수
출판도시	파주
페이지수	246
ISBN 또는 ISSN	978-8936811105

내용 요약

『터키사 100: 가장 쉽게 읽는 터키사』는 튀르크족이 아나톨리아에 정착한 기원전 2천년부터 오늘날의 에르도안 정부까지 민족사를 중심으로 서술한 책이다. 튀르크에서 흉노족, 돌궐족, 위구르족 등 다양한 분파가 발생하였고,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16개 제국과 수많은 소국가들이 건설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터키공화국으로 변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튀르크는 신장 위구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튀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터키의 역사를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영토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연관된 지역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장 고대 튀르크에서는 튀르크의 아나톨리아 정착부터 흉노족의 번영과 멸망, 돌궐 제국의 분열과 흥망을 설명하였다. 2장 튀르크 국가들의 등장에서는 위구르, 스텝 지역의 튀르크 국가들, 유럽의 튀르크 국가들, 이들 국가의 정치 체제, 법, 종교, 문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3장 이슬람 튀르크 왕조는 중앙아시아 지역, 셀주크 제국, 서아시아의 튀르크 국가들, 수피즘, 학문과 문화 등을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4장 오스만 제국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성립부터, 영토 팽창 과정, 콘스탄티노플 함락, 오스만 제국의 유럽화와 근대화, 1차 세계대전과 터키 독립 전쟁을 담고 있다. 5장 터키공화국에서는 세속적인 공화국의 탄생과 술탄제 폐지, 아타튀르크의 개혁, 2차 세계대전, 군부 쿠데타와 자본주의적 경제 개혁 과정, 에르도안 정부의 탄생과 터키의 새로운 도약에 대해 전망하였다. 시대사적인 서술과 민족사적 서술을 절묘하게 혼합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